제주자치경찰단 껍데기만 남게 되나…

자치경찰제 도입 개정안 발의로 독립지위 상실
제주자치경찰 그나마 갖던 수사권한 수사경찰로

제주자치경찰단이 우려한 대로 독립된 외청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사실상 국가경찰에 흡수된다. 자치경찰제 전국 도입과 국가경찰·자치경찰 조직 일원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제주자치경찰단에도 예외없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의 후속 작업 차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관할 지역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교통사고·성폭력·가출인·실종아동 등 범죄의 수사사무로 규정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 임무로 규정해 자치경찰과 소관 업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또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수사 사무를 독립적으로 지휘·총괄하기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 외부 인사도 선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했다. 또 개정안은 경찰관이 상주하는 외청 기관을 경찰청, 시·도 경찰청, 경찰서로만 규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외청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은 경찰 외청 체계에서 빠져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독립적 수사권한도 축소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산림·환경·식품위생 분야 등의 수사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수사경찰인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현재 설치된 외청 건물과 앞으로의 수사업무 진행 방향 등에 대해 국가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운영해왔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커피박 비료를 사용한 청경채 생육시험 모습. 사진=제주대학교 제공

버려지는 커피박 유기농업자재로 활용

도내 1500여곳서 커피박 발생
제주대·생기원 자원 재순환

제주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커피찌꺼기)'이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돼 농업자원으로 재순환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당면 문제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사업으로,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기관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커피음료점에서 발생하는 커피박에 주목했다. 도내 커피음료점 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1000명을 돌파했고, 여기에 제과점과 일반음식점까지 감안하면 약 1500곳에서 커피박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기관은 스타벅스코리아와 협력해 제주지역 내 '커피박 자원순환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사)일하는사람들과 함께 스타벅스에서 제공받은 커피박을 활용한 유기농업자재 개발을 진행했다.

이후 잔류농약, 미생물, 유해성분, 항생제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됐다.

제주대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관계자는 "제주는 쓰레기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활동 기업들이 자원순환캠페인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시 낮 최고기온 34.9℃

4일 제주시 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하는 34.9℃까지 치솟는 등 폭염날씨가 이어졌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북부·제주지방기상청)의 낮 최고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4.9℃를 기록했다. 애월지역도 34.3℃, 외도 33.9℃, 오등 33.1℃, 월정 32.8℃, 한림 32.4℃ 등으로 제주 북부와 동부·서부를 중심으로 찜통더위를 보였다.

이날 서귀포(남부) 지역 역시 올 들어 처음 30℃를 넘어서며 낮 최고기온은 30.5℃를 나타냈다.

앞서 제주도 북부와 동부·서부는 지난달 28일, 남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청은 당분간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일사가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30~33℃(일 최고 체감온도 31~34℃)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밤에도 낮 동안 오른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4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에서 제트보트에 몸을 실은 관광객들이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제주의 여름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익수·추락 등 안전사고 빈번… 탑동공원에 '열화상 카메라' 설치

도, 특교세 확보 올해말 계획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탑동해변공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제주도는 탑동해변공원에서 발생되는 익수, 추락사고 예방 및 실제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해안을 방문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구축' 사업에 응모한 바 있다.

올해 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해무와 안개 등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24시간 피사체 탐지가 가능해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탑동해변공원 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되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한 CCTV통합관제센터 및 해양경찰서 상황실과 연계해 해양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김병구 제주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

인천지방경찰청장 내정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치안감·사진)이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됐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자리인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후임 제주경찰청장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경남 경산고와 경찰대 법학과,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한 김 청장은 2006년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비단장(총경)을 지낸 인연이 있으며 이후에는 서울청 은평경찰서장, 서울청 1기동단장을 거쳐 2014년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어 서울청 기동본부장,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관을 역임한 뒤 지난 2018년 치안감을 달았으며 이듬해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고 후 견인되던 차량서 불

제주에서 견인 중이던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도로에서 강모(20)씨 소유의 승용차가 견인되던 중 화재가 발생,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해당 차량은 한림읍 동명리에서 차량 단독 충돌사고로 엔진룸이 파손돼 견인되던 중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다혜기자